

葛根解肌湯의 基源, 變遷, 構成에 대한 考察

장현수 · 김윤희 · 강미정 · 이지원 · 이준희 · 고병희 · 이의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Study on The Origin, Changes, and Composition of Galgeunhaegi-tang

Jang Hyun-Su, Kim Yun-Hee, Kang Mi-Jeong, Lee Ji won, Lee Jun-Hee, Koh Byung-Hee, Lee Eui-Ju*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Seoul, Korea

1. Objectives

This paper was written in order to understand the origin and changes of Galgeunhaegi-tang.

2. Methods

We analysis Galgeunhaegi-tang through pathology and new prescription in 『Donguibogam(東醫寶鑑)』, 『Chobongwon(草本卷)』, 『Gabobon(甲午本)』 and 『Sinchukbon(辛丑本)』 of 『Dongyi Suse Bowon』.

3. Results and Conclusions

We can find the first origin of Galgeunhaegi-tang in 『Sinchukbon(辛丑本)』 in 『Donguibogam(東醫寶鑑)』 which involves Galgeunhaegi-tang in the categories of pestilence(瘟疫) and Yangmyeonggyeongbyeong(陽明經病). Also, we can find the origin in Jugoeng(朱肱) Jojung-tang.

Seungeumgalgeun-tang in the 『Chobongwon(草本卷)』 developed by a Galgeunhaegi-tang of 『Gabobon(甲午本)』, and Galgeunnabokja-tang in the 『Chobongwon(草本卷)』 developed by a Galgeunhaegi-tang of 『Sinchukbon(辛丑本)』.

It is considered that Galgeunhaegi-tang of 『Gabobon(甲午本)』 solves heat depression(鬱熱), due to not throwing off, by using Galgeun(葛根) and Daehwang(大黃), and accompanied dryness(燥) by using Hangin(杏仁) and Sanjoin(酸棗仁) which moisten dryness(燥).

It is considered that Galgeunhaegi-tang of 『Sinchukbon(辛丑本)』 solves heat depression(鬱熱) by using Galgeun(葛根) and accompanied dryness(燥) by using Gobon(藁本) which sets free dryness(燥).

Key Words : Galgeunhaegi-tang, Taeumin, Heat depression(鬱熱), Dryness(燥), Gobon(藁本)

• 접수일 2009년 06월 29일; 심사일 2009년 07월 09일;
승인일 2009년 08월 01일
• 교신저자 : 이의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82-2-958-9230 Fax: +82-2-958-9234
E-mail : sasangin@khmc.or.kr

I. 緒 論

四象醫學의 病證藥理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¹⁾(이하 『草本卷』)에서 病證과 藥理가 분리되어 있고 藥方의 대부분 古方²⁾과 유사한 형태였다. 『東醫壽世保元·甲午本』³⁾(이하 『甲午本』)은 病證과 藥理를 결합하고 있으며 古方인 經驗藥方과 新方⁴⁾을 동시에 기술하면서 新方을 위주로 病證論을 진행한다. 『東醫壽世保元·辛丑本』⁵⁾(이하 『辛丑本』)은 病證論의 전개가 『甲午本』과 유사하며 藥理에 있어 古方인 經驗藥方은 『甲午本』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新方만 개조한다.¹⁾

葛根解肌湯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이²⁾의 甲午本 葛根解肌湯을 활용한 동물실험으로 葛根解肌湯의 鎮靜作用, 鎮痛作用, 抗痙攣作用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박³⁾의 신축본 葛根解肌湯과 원지상의 葛根解肌湯을 활용한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상기 두 연구는 실험적 고찰 중심이었으며, 葛根解肌湯의 기원, 변천, 구성에 대한 고찰은 미흡하였다. 또한 한⁴⁾의 태음인의 처방구성에 관한 연구에서 辛丑本 葛根解肌湯의 기원에 대한 고찰이 있었지만, 『東醫壽世保元·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서의 葛根解肌湯의 변천에 대한 고찰은 미흡하였다.

이에 필자는 『東醫壽世保元』의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經驗行用要藥 九方」에서 東武의 葛根解肌湯에 대한 기원을 찾고,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 제시되는 조문과 처방을 통해 비교 연구하여 葛根解肌湯의 기원,

변천, 구성에 대해 몇 가지 새로운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및 內用

1. 研究方法

- 1) 東武가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제시하고 있는 『東醫壽世保元』의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經驗行用要藥 九方」중 葛根解肌湯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처방을 기초로 고찰한다.
- 2) 고찰 순서는 서지학적 순서에 의한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의 葛根解肌湯과 관련된 조문 및 처방을 비교 연구한다.
- 3) 논문에 기재된 조문 및 조문 번호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서 편찬한 『사상체질과 임상편람』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구내용

- 1)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經驗行用要藥 九方」의 葛根解肌湯과 관련된 조문⁵⁾
 葛根解肌湯
 葛根 升麻 黃芩 桔梗 白芷 柴胡 芍藥 羌活 石膏 各一錢 甘草 五分
 ○ 治陽明病 目疼 鼻乾 不得臥
 ○ 今考更定 此方 當去 柴胡 芍藥 羌活 石膏 甘草

비고 - 東醫寶鑑;瘟疫:溫疫治法⁶⁾
 春發溫疫 宜葛根解肌湯 夏發燥疫 宜調中湯 秋發寒疫 宜蒼朮白虎湯(方見暑門) 冬發濕疫 宜甘桔湯(方見咽喉) 表證用荊防敗毒散 半表裏證 用小柴胡湯 裏證用大柴胡湯(方見寒門) 宜補宜散 宜降用人中黃丸.<入門>
 비고 - 東醫寶鑑;寒:陽明病禁忌⁶⁾
 葛根解肌湯
 治陽明經病 目疼 鼻乾 不得臥 宜解肌 葛根 柴胡 黃芩 芍藥 羌活 石膏 升麻 白芷 桔梗 各一錢 甘草 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醫鑑>

1) 李濟馬原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
 2) 古方은 漢의 『傷寒論』의 處方뿐만 아니라 宋元明 醫家들의 處方까지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經驗藥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본 研究에서는 古方으로 통일하였다.
 3)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4) 新方은 東武가 새로이 만든 處方으로 古方의 相對되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新定藥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본 研究에서는 新方으로 통일하였다.
 5)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1998.

Table 1. 辛丑本 葛根解肌湯의 기원이 되는 처방 명, 처방 구성 및 해당문헌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經驗行用要藥 九方」		入門-葛根解肌 湯(溫疫)	草本卷		甲午本 葛根解肌湯	辛丑本 葛根解肌湯
醫鑑-葛根解肌 湯(陽明經病)	調中湯		升陰葛根湯	葛根蘿卜子湯		
葛根1錢	葛根1錢	葛根3錢	葛根3錢	葛根4錢	葛根3錢	葛根3錢
黃芩1錢	黃芩1錢	黃芩2錢	黃芩1錢	黃芩1錢	黃芩1錢	黃芩1.5錢
	藁本1錢			藁本1錢		藁本1.5錢
			杏仁1錢		杏仁1錢	
桔梗1錢	桔梗1錢		桔梗1錢	桔梗1錢	桔梗1錢	桔梗1錢
升麻1錢			升麻2錢	升麻1錢	升麻2錢	升麻1錢
白芷 1錢			白芷1錢	白芷1錢	白芷1錢	白芷1錢
			酸棗仁1錢		酸棗仁1錢	
			蘿蔔子1錢	蘿蔔子1錢		
	大黃1.5錢			大黃1錢	大黃1錢	
柴胡1錢						
芍藥1錢	芍藥1錢	芍藥1.5錢				
羌活1錢	白朮 1錢					
石膏1錢	赤茯苓1錢					
甘草0.5錢	甘草1錢	甘草0.8錢				
		麻黃2錢				
		桂枝1錢				
治陽明經病 目疼 鼻乾 不得臥 今考更定 此方 當去 柴胡 芍藥 羌活 石膏 甘草	治夏發燥疫 口乾咽塞 今考更定 此方 當去 白朮 芍藥 茯苓 甘草	治春疫發熱而渴	晝用 夜則加五味子 便秘加大黃	治小便不利 及淋疾用		

一名 柴葛解肌湯.<回春>

調中湯

大黃 一錢 五分 黃芩 桔梗 葛根 白朮 白芍藥
赤茯苓 藁本 甘草 各一錢

- 治夏發燥疫 口乾咽塞
- 今考更定 此方 當去 白朮 芍藥 茯苓 甘草

- 2) 『東醫壽世保元·草本卷』7의 辛丑本 葛根解肌湯과 관련된 조문
- 解熱升陰湯
治全身濕瘡神效
葛根 藁本 各四錢 天門冬 麥門冬 黃芩 蘿蔔子 升麻 各一錢半 五味子 杏仁 桔梗 白芷 各一錢

升清解鬱湯

治痰鬱症用

天門冬 葛根 黃芩 蘿蔔子 各二錢 升麻 五味子 麥門冬 酸棗仁 桔梗 杏仁 麻黃 大黃 各一錢

葛根蘿卜子湯

治小便不利 及淋疾用

葛根 四錢 蘿蔔子 二錢 黃芩 桔梗 藁本 白芷 升麻 大黃 各一錢

升陰葛根湯

晝用 夜則加五味子 便秘加大黃

葛根 三錢 升麻 二錢 桔梗 杏仁 棗仁 黃芩 白芷 蘿蔔子 各一錢

清升葛根湯

治便滑則減藁本 便秘則加大黃

葛根 三錢 升麻 二錢 麥門冬 桔梗 五味子 天門冬 黃芩 白芷 酸棗仁 杏仁 蘘本 各一錢

葛根二黃湯

葛根 薏米 各一錢半 麥門冬 蘿菔子 桔梗 各一錢 白芷 麻黃 黃芩 升麻 杏仁 各七分

加葛根湯

葛根 薏米 各二錢 麥門冬 一錢半 蘿菔子 桔梗 石菖蒲 元芩 五味子 麻黃 各一錢
若小便秘燥澁則 加大黃一錢
淋疾則 去五味子 加大黃一錢
不拘初用十五六貼

天門冬潤肺湯

治目痛 鼻乾 憎寒壯熱 頭痛 腰痛 燥澁者用
天門冬 三錢 黃芩 二錢 麥門冬 酸棗仁 升麻 葛根 桔梗 杏仁 五味子 大黃 各一錢

升麻開腦湯

治寒厥四五日汗不出者
升麻 三錢 麥門冬 天門冬 五味子 酸棗仁 元芩 麻黃 桔梗 杏仁 葛根 款冬花 白芷 大黃 各一錢

3) 『東醫壽世保元·甲午本』7의 辛丑本 葛根解肌湯과 관련된 조문

葛根解肌湯

葛根 三錢 升麻 二錢 桔梗 黃芩 杏仁 酸棗仁 白芷 大黃 各一錢.

調中湯

大黃 一錢五分 黃芩 桔梗 葛根 白朮 芍藥 赤茯苓 蘘本 甘草 各一錢.

此方 出於朱肱活人書中. 治夏發燥疫 口乾咽塞. 今考更定 此方 當去 白朮 芍藥 茯苓 甘草.

4) 『東醫壽世保元·辛丑本』5의 辛丑本 葛根解肌湯과 관련된 조문

葛根解肌湯

葛根 三錢 黃芩 蘘本 各一錢五分 桔梗 升麻 白芷 各一錢

Ⅲ. 考 察

1. 葛根解肌湯의 기원에 대한 고찰

우선 『東醫壽世保元』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經驗行用要藥 九方」 중 辛丑本 葛根解肌湯의 기원이 되는 처방은 바로 醫鑑의 葛根解肌湯과 朱肱의 調中湯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문헌과 처방 이름 및 구성은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經驗行用要藥 九方」에서 제시된 葛根解肌湯에 대한 처방 구성 및 효능은 - 『東醫寶鑑·寒·陽明病禁忌』에서 제시되는 葛根解肌湯과 일치한다. 또한 『東醫寶鑑·瘟疫·溫疫治法』에서는 처방 구성이 다른 入門의 葛根解肌湯⁶⁾이 제시된다. 전자는 양명경병에 사용하며, 후자는 온역에 사용한다. 辛丑本의 葛根解肌湯의 약물 종류만을 봤을 때는 양명경병의 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주약인 葛根 및 黃芩의 분량을 보면 온역의 葛根解肌湯과 더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辛丑本의 葛根解肌湯은 양명경병과 온병의 葛根解肌湯을 합친 것과 같은 약물구성 및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

그리고 辛丑本 葛根解肌湯에서의 蘘本은 朱肱의 온병 처방인 調中湯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 葛根 黃芩 桔梗은 葛根解肌湯과 비슷하지만 蘘本 大黃 등은 이 처방이 가진 특징으로 大便燥 및 其他燥를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經驗行用要藥 九方」에서 제시된 葛根解肌

6) 東醫寶鑑 瘟疫 陽明病禁忌

○ 春發溫疫 宜葛根解肌湯 夏發燥疫 宜調中湯 秋發寒疫 宜蒼朮白虎湯(方見暑門) 冬發濕疫 宜甘桔湯(方見咽喉) 表證用荊防敗毒散 半表裏證 用小柴胡湯 裏證用大柴胡湯(方見寒門) 宜補宜散 宜降用人中黃丸.<入門>

東醫寶鑑 寒 溫疫治法

[葛根解肌湯]

○ 治陽明經病 目疼 鼻乾 不得臥 宜解肌 葛根 柴胡 黃芩 芍藥 羌活 石膏 升麻 白芷 桔梗 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醫鑑>
○ 一名 柴葛解肌湯.<回春>

湯이 熱證을 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調中湯은 燥證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⁴

2.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의 葛根解肌湯의 변천과정

우선 草本卷에서 葛根이 사용된 처방을 살펴보면 解熱升陰湯, 天門冬潤肺湯, 升麻開腦湯, 升清解鬱湯, 葛根蘿卜子湯, 升陰葛根湯, 清升葛根湯, 葛根二黃湯, 加葛根湯이다. 그리고 이들 처방의 공통 약물을 살펴보면 葛根, 升麻, 桔梗, 黃芩, 栝子仁데 이 약물들은 고방의 葛根解肌湯의 주요 약물들로 草本卷의 葛根 사용 처방은 고방의 葛根解肌湯을 변통한 처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공통 약물에 藁本을 추가하면 辛丑本 葛根解肌湯의 구성약물과 동일하며, 여기에 蘿蔔子를 추가하면 熱多寒少湯의 구성약물이 된다.

草本卷의 葛根 사용 처방 중 甲午本 葛根解肌湯과 가장 처방구성상 가까운 처방을 살펴보면, 우선 升陰葛根湯을 제시할 수 있다. 甲午本 葛根解肌湯에서 大黃이 빠지며 대신 蘿蔔子が 1돈 들어간 것 외에는 거의 동일한 처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便秘加大黃에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蘿蔔子외에는 거의 같은 처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升陰葛根湯을 甲午本의 葛根解肌湯의 기원에 가장 가까운 처방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辛丑本 葛根解肌湯과 비슷한 草本卷 처방을 살펴보면, 葛根蘿卜子湯을 들 수 있다. 補遺方의 葛根蘿卜子湯과는 이름만 같을 뿐 구성은 많이 다른 처방이다. 辛丑本 葛根解肌湯 보다는 葛根이 1錢 많고 黃芩, 藁本은 0.5錢이 적으며 蘿蔔子와 大黃이 1錢 추가되어 있다. 어떠한 관점에서는 辛丑本의 熱多寒少湯과 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선 辛丑本 葛根解肌湯이 甲午本 葛根解肌湯과 달리 藁本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草本卷 葛根 사용 처방 중 葛根蘿卜子湯을 辛丑本 葛根解肌湯의 기원에 가장 가까운 처방으로 볼 수 있다.

3.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의 葛根解肌湯 변천과정

甲午本의 葛根解肌湯은 우선 辛丑本과 비교하여 藁本이 빠져 있으며, 대신 杏仁, 酸棗仁, 大黃 升麻가 1錢 씩 더 추가되어 있다.

杏仁은 辛丑本에서는 주로 背傾表病(麻黃發表湯, 麻黃定喘湯, 寒多熱少湯)과 胃脘寒證(麻黃定痛湯, 鹿茸大補湯)에서 사용되었는데, 즉 表病에서만 활용되고 裏熱病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酸棗仁 또한 調胃升清湯과 清心蓮子湯에서만 사용되었는데, 裏熱證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甲午本의 葛根解肌湯은 惡寒發熱長感病(表之表病)과 陽毒燥澁(表之裏病)에서 모두 활용되었는데, 甲午本 저술 당시에는 辛丑本 태음인의 表裏病에 대한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東武가 太陰人の 表裏病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杏仁과 酸棗仁과 같은 表病에서(辛丑本 관점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는 약물이 甲午本에서는 葛根, 升麻, 白芝와 같은 裏熱病에 활용되는 약과 같이 병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甲午本 葛根解肌湯은 陽毒燥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陽毒燥澁의 병리적 상황을 비추어 보면 陽毒은 呼散되지 못하여 생긴 熱로 인한 것이며 이 상황은 葛根, 大黃을 중심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동반되는 燥澁 즉 燥는 杏仁과 酸棗仁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의 葛根解肌湯 변천과정

辛丑本 葛根解肌湯은 甲午本 葛根解肌湯에서 杏仁 酸棗仁이 빠지고 藁本이 추가된 처방이다. 우선 藁本이 추가된 것이 특징적이다. 草本卷에서는 藁本이 다양한 처방에서 활용되었으나 甲午本에서는 藁本이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 病經驗行用要藥九方 중 調中湯에서만 제시될 뿐 新定方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辛丑本에서 藁本이 葛根解肌湯과, 熱多寒少湯에서 다시 사용된다. 또한 辛丑本에서 手指焦黑瘡病과 飲一洩二證에서 藁本이 사용되는 용례⁷⁾가 나오는데

7) 『東醫壽世保元·辛丑本』 13-19 嘗治 太陰人 燥熱證 手指焦黑瘡病

두 가지 병태 모두 肝受熱裏熱病에서 燥證이 더욱 진행된 상태인데, 이때 藜本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藜本이 燥證을 해결하는 목표로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藜本은 주로 祛風散寒하고, 除濕止痛 효능을 바탕으로 주로 表寒證에 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東武는 앞에서 논하였던 朱肱의 調中湯에서 夏發燥疫 口乾咽塞에서 藜本을 활용했던 것을 취하여 태음인 肝受熱裏熱病에서 발생한 燥를 해결함에 있어 새로운 藜本의 활용법을 辛丑本에서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즉 甲午本에서는 表裏에 대한 辛丑本 보다는 명확한 구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辛丑本에서는 裏病의 범주인 陽毒燥濕證에서도 辛丑本에서는 表病에서 활용하였던 杏仁과 酸棗仁을 활용하여 燥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辛丑本에서는 裏熱病에서 나타나는 燥를 해결하는 약물로 杏仁이나 酸棗仁이 아닌 藜本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武의 葛根解肌湯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에서 제시된 葛根解肌湯과 調中湯에서 葛根, 黃芩, 桔梗, 升麻, 白芷, 藜本을 취하였으며 이 약물을 바탕으로 葛根解肌湯이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에서 변천되었다, 草本卷에서 위의 약물을 활용하여 여러 처방으로 변천하였으며, 그 중 升陰葛根湯과 葛根蘿卜子湯이 각각 甲午本과 辛丑本の 葛根解肌湯으로 변천한

Figure 1. 葛根解肌湯의 變遷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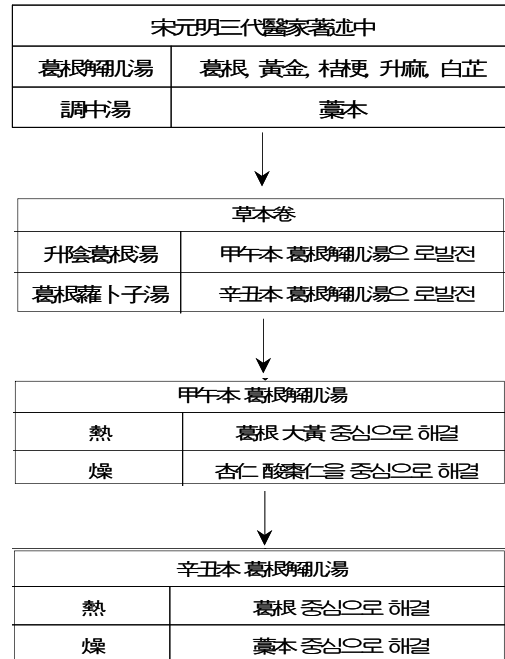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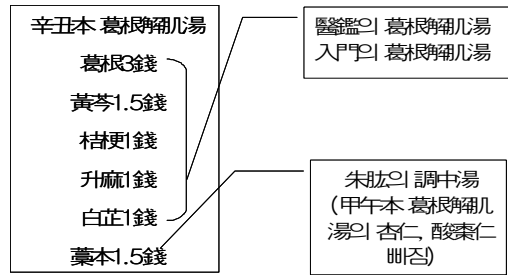


Figure 2. 辛丑本 葛根解肌湯의 處方 構成圖



것으로 보인다.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葛根解肌湯을 통해 태음인의 熱과 燥를 해결하고 하는 東武의 노력이 보이는데, 우선 甲午本 葛根解肌湯에서는 태음인의 熱과 燥를 해결함에 있어 葛根, 大黃을 중심으로 熱을, 杏仁과 酸棗仁을 통해 燥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천하였다가 최종적으로 辛丑本에서 葛根을 중심으로 熱을 해결하고, 調中湯 藜本을 燥疫에 활용했던 것을 다시 활용하여 藜本 중심으로 燥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

自左手中指 焦黑無力 二年內 一指黑血凝過掌心而掌背浮腫 以刀 斷指矣
 又一年內 癩瘡 遍滿全體 大者如大錢 小者如小錢 得病 已爲三年 而以壯年人 手力 不能役勞 一半刻 足力 不能日行步三十里
 以熱多寒少湯 用藜本二錢 加大黃一錢 二十八貼 用之 大便始滑 不過一二日 又秘燥
 又用二十貼 大便不甚滑泄 而面部癩瘡 少差 手力 足力 稍快有效矣
 又用二十貼 其病快差.

- 8) 『東醫壽世保元·辛丑本』 13-24 嘗治 太陰人 年五十 近衰者 燥熱病 引飲 小便多 大便秘者 用熱多寒少湯 藜本二錢 加大黃一錢 二十貼 得效矣 後一月餘 用他醫藥五貼 此人 更病 復用熱多寒少湯 加藜本 大黃 五六十貼 用藥時間 其病僅僅支撐 後終不免死 又嘗治 太陰人 年少者 燥熱病 用此方 三百貼 得支撐一周年 此病 亦不免死 此人 得病一周年 或間用他醫方 未知緣何故也. 蓋燥熱 至於飲一澗二 而病劇則難治. 凡太陰人 大便秘燥 小便覺多 而引飲者 不可不早 治豫防.

끝으로 辛丑本 葛根解肌湯의 처방구성을 살펴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の 葛根解肌湯에서 葛根, 黃芩, 桔梗, 升麻, 白芷를 취하였으며, 이때 葛根의 용량 결정은 入門의 葛根解肌湯에서 葛根 3錢을 활용했던 것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성은 甲午本 葛根解肌湯까지 이어졌으나, 태음인의 燥를 해결함에 있어 杏仁과 酸棗仁 대신, 朱芫의 調中湯의 藥本을 다시 辛丑本에서 취하여 활용한 것으로 사료된다(Figure 2).

IV. 結 論

辛丑本 葛根解肌湯에 대해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 관련 조문 및 처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辛丑本 葛根解肌湯의 최초 기원은 『東醫寶鑑』의 瘟疫의 葛根解肌湯과 陽明經病의 葛根解肌湯 및 朱芫의 調中湯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2.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의 升陰葛根湯에서 甲午本の 葛根解肌湯으로 발전하였으며, 葛根蘿卜子湯에서 辛丑本の 葛根解肌湯으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3.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의 葛根解肌湯은 呼散되지 못하여 생긴 熱은 葛根, 大黃을 중심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동반되는 燥는 杏仁과 酸棗仁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의 葛根解肌湯은 裏熱病이라는 병태에서 葛根을 중심으로 율체된 熱을 해소하면서 동반된 燥를 藥本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향후 辛丑本 葛根解肌湯과 辛丑本 熱多寒少湯의 비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두 처방은 구성상 蘿蔔子의 有無과, 용량상 葛根과 藥本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太陰人 肝受熱裏熱病에서 두 처방의 구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V. 參考文獻

1. Han. K.S, Park S.S. The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Soyangi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6;18(3):38-48.(Korean)
2. Rhee. JW. The experimental studies on the effects of Taeumin Galgeunhaegi-tang.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0;2(1):123-134.(Korean)
3. Park SK, Koh BH, Song IB. The effects of Galgeunhaegi-tang. for Taeumin on the immune response.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7;9(1): 315-336.(Korean)
4. Han. K.S, Park S.S. The Study on prescription's combination of Taeumi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7;19(3):1-10.(Korean)
5. Lee JM. Dongyi Suse Bowon(8th edition). Seoul, Daesung Publication, 1998.(Korean)
6. Hur-Joon. Donguibogam. Hadong, Donguibogam Publication, 2005:1057,1055. (Korean)
7. Lee JM(translation with notes by Park S.S).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ngwon. KyungKi-do, Jipmundang Publication, 2005.(Korean)
8. Lee JM(translation with notes by Kim D.L). Dongyi Suse Bowon Gabogubon. Seoul, Mokgwato Publication, 2002.(Korean)